



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통권 제47호
2014 December Vol.47

Contents

권두언	1
학회장 신년사	2
논문발표회 및 학술대회 소식	2
수상 소식	3
학회지 발간 소식	4
공지사항	4
회비납부	5
회원동정	6
신간소개	7

발행일 2014. 12. 31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이강은

권두언

올해로 한러수교 25주년이 되었지만, 러시아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유가 하락,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문제, 그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 지위 등에 대한 소식은 복잡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서광진 (서울대)

러시아어문학을 공부하는 개인으로서 러시아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이슈들을 통해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러시아학도 그 중요성을 확인받는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전망들이 부정적인 것들 위주이며, 러시아 국내의 민주주의 후퇴와 제왕적 통치 방식 등에 대한 우려는 국제 질서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부끄럽게도 개인으로서의 저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저는 러시아에 대한 이 두 평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주목을 받는 것은 저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되고 만다면, 마냥 좋은 일도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줄곧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로도 문제적이지만, 나와 러시아의 관계도 이렇게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현재의 러시아를 포함한)에 보다 집중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러시아와 러시아문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개인적인 인정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닐까?

정답도 없는 고민이고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현실에 개입할 수도 없지만, 올 한해는 이 문제를 새롭게 고민하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나에게 무엇인지?

학회장 신년사

한국러시아문학회는 새해 연구주제를 ‘혁명과 변혁’에 두고 있다. 2017년이 되면 러시아 혁명 백주년이 되는데, 우리 학회는 2015년 올해부터 3년간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연구를 집약적으로 전개해 그 성과를 혁명 백주년 학술대회로 수렴할 계획이다.

러시아혁명이 미친 세계적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학회가 꼭 해내야 할 연구주제라는 책임감도 크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3차례 정례학술발표대회는 이 주제로 진행할 것이다.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공동 연구도 모색해볼 계획이다. 특히 우리 학회는 올해 러시아권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 주관학회가기도

하다. 여러 학회와 긴밀히 협조해 연합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한국러시아문학회에서는 상반기에 우수한 학술적 업적으로 보여준 회원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말에는 ‘올해의 논문’도 선정할 계획이다. 모쪼록 학회가 더 뜻 깊고 유익한 학문적 소통의 장으로 활발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 위의 내용은 2015년 1월 5일에 교수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014년 10월 11일에 제4차 러시아학 관련 국내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되어 이강은 학회장님이 폐회 연설을 하셨습니다.



▶ 2014년 12월 13일에 제72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최정현 회원(대구대)이 [17세기 러시아 문학 이해를 위한 시도]를, 김윤미 회원(경북대)이 [러시아적 세계상과 ‘운명’의 개념]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서상범 회원(부산외대)이, 토론은 변현태 회원(서울대)과 김진규 회원(고려대)이 각각 맡아 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이남경 회원(고려대)이 [반사실적 수사 *было* 구문의 문법화와 TAM(시제-상-양상)]을, 정경택 회원(경상대)이 [몰도바의 소수민족과 언어상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김용화 회원(충북대)이 사회를, 김정일 회원(경북대)과 정영주 회원(안양대)이 토론을 맡아 주셨습니다.



수상 소식

▶ 이남경 회원(고려대), 2014 한국러시아문학회 올해의 논문상 수상

2014년 12월 13일에 2014 한국러시아문학회 올해의 논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 상은 이남경 회원의 [결과의 무효: БЫЛО 구문의 의미와 결합성에 관하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7집)이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의 논문상은 매년 겨울, 그해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에 수록된 논문 중 한 편을 선정하여 상과 상패, 소정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수상 소감



오랜 시간 러시아문학회와 함께 자랐습니다. 러시아문학회를

통해 많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연구에 정진하시는 많은 연구자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몸 둘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 송구스러움을 그동안 나타냈던 순간들, 연구를 하면서도 꼭 즐겁지만은 않았던 순간들에 대한 반성으로 대신합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비우면 편안해진다’는 말을 마음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손 놓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제 자리를 지킬 때 온전한 ‘비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즈음,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따뜻한 시선과 게으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이 털끝만 한 ‘비움’을 채워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받들어, 학문을 대할 때나, 세상을 대할 때나 인문학적인 따뜻한 시선,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평 (김정일 편집위원장)

이남경 회원의 논문 ‘결과의 무효: БЫЛО 구문의 의미와 결합성에 관하여’는 러시아어에서 매우 복잡한 역할을 하는 조사 БЫЛО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꼼꼼하게 밝히고 있다. 우선 의미적 차원에서 БЫЛО가 사건의 장애와 좌초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러한 사건의 장애와 좌초,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의 무효가 개별 문장 차원에서 다양한 시간적, 양상적, 명제적 변수들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통사적 측면에서 БЫЛО 구문은 단문뿐 아니라, 병렬복문과 종속복문과 자유롭게 결합하는데, 이는 БЫЛО 구문이 오랜 기간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역할을 단문에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병렬복문과 종속복문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다양한 의미관계와 정보위계들과 결합을 확대해가는 일종의 진화의 과정을 밝힌 것이라는 점을 꼼꼼히 실증적으로 규명한 점이 여러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위의 소식은 2014년 12월 22일에 교수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 김선명 회원(뿌쉬킨하우스), 푸쉬킨 메달 수상



김선명 회원이 2014년 11월 4일에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에서 푸쉬킨 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선명 원장은 2002년 뿌쉬킨 하우스를 개원하여 한국 내 러시아어 교육과 한러 문화교류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푸쉬킨 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여식에서 김선명 원장은 “이 영광스러운 메달은 한러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이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푸쉬킨 메달은 우리 학회의 석영중 회원(고려대), 조주관 회원(연세대), 엄구호 회원(한양대)이 앞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학회지 발간

▶ 10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7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45집에는 문학, 언어학, 지역학, 문화 분야의 논문 1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윤영순 회원(경북대)의 [『체벤구르』와 초월적 전통으로서의 러시아 유토피아]를 비롯한 논문 4편이, 어학 분야에는 길윤미 회원(경북대)의 [18~19세기 초반 러시아 언어문화에 대한 소고: 프랑스어의 영향을 중심으로] 외 4편이, 지역학 분야에는 이지연 회원(한국외대)의 [“만들어지고 있는” 민족/국가(nation): 포스트소비에트 벨라루스의 민족주의와 국가정체성]이, 문화 분야에는 권정임 회원(선문대)의 [표도르 톨스토이의 정물화: 식물학적 세

밀화, 낭만주의적 유희, 회화적 관습성의 노출] 외 1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총무간사 정영주 karusist@naver.com, 010-3136-1650)

공지사항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48집 투고 안내

2015년 2월 28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논집』 제48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5년 1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49집 투고 안내

2015년 6월 30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논집』 제49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5년 5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러시아어문학논집』에 게재할 원고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노어노문학과 김정일 교수 연구실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93-510378 김정일

회비납부

▶ 회비 납부 현황

2014년 12월 31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총무간사 정영주(karusist@naver.com)에게 연락 주십시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14)

김정일 편집위원장 1,000,000원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변현태 부회장 1,000,000원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 특별회비를 후원해 주신 김정일, 백용식, 변현태, 전명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비는 학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09~)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4년 12월 31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이강은, 이규환, 이기용,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욱,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78인)

▲ 평생회비 부분납(2014년 12월 31일 현재)

민경현, 백경희, 서선정, 윤새라, 윤영순, 이수현(이상 10만원), 김태욱, 홍택규(이상 15만원), 안지영(20만원), 이득재(38만원) (이상 10인)

▲ 연회비 납부(2014년 12월 31일 현재)

권정임, 길윤미, 김연경, 김주연, 김홍중, 이문영, 임수영, 황서경 (이상 8인)

▶ 2015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5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10-406-930904 이강은입니다.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회원동정

▶ 권정임 회원(선문대)이 2015년 3월 1일 - 2016년 2월 28일까지의 연구년을 독일 콘스탄츠 대학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40주년 행사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는 지난 11월 28일(금) 교우회관에서 학과 창립 40주년 행사를 열었다. 노문과 교우와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함영준 행사준비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해 “미래 한국과 러시아 교류의 중심에 고대노문과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사를 건넸다. 이날 행사의 1부는 이형걸(86) KBS 아나운서와 황수현(05) 채널A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백연수 회장은 박형규 전 노문과 교수와 최선 교수에게 감사패를, 조주관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30주년 행사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는 2014년 10월 25일(토) 교수회관에서 학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Домой 30!”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문과 졸업생 및 재학생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인영 전 노문과 교수, 장소원 국문과 교수 등 학과 설립 및 운영에 기여한 학내 인사들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교우들 또한 축하 동영상을 보내왔다. 박혜경 준비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창립행사는 학과장 김희숙 교수의 축사와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1회 졸업생인 84학번 교우들이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공동기탁함으로써 동문회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겼다.

▶ 한국의대 노어과 60주년 행사



지난 9월 19일(금) 저녁 7시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노어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러시아어 교육 60주년 기념 축하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노어과와 노어과 동문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인철 총장, 올렉 다비도프 주한러시아 부대사, 김학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세르게이 살로프 Aeroflot 러시아 항공 한국지사장, 1회 졸업생인 강인덕 전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과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 배석규 YTN사장 등 330여 명의 노어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비롯한 많은 하객이 참석하였다.

각계각층 대표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학생들이 풍물, 러시아 민속 춤, 러시아 노래 합창 등을 합동으로 공연하였으며 노어과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내한한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민속무용단의 민속공연도 이어졌다. 2부 순서에는 KBS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인 장일범 87학번 졸업생의 진행으로 Coamorous Quartet, 피아니스트 피경선 국민대 교수, 바리톤 남완, 베이스 이연성, 바이올리니스트 김혜령, 피아니스트 서혜정 등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이 참여한 수준 높은 음악 공연이 준비되었다.

* 교원 임용, 학위 취득, 결혼, 연구 활동을 위한 출국이나 귀국 등의 소식을 총무이사(kjlee@anyang.ac.kr), 총무간사(karusist@naver.com)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 회원들의 소식도 좋습니다.

신간소개

신간소개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을 올립니다.)



1. 『책에 따라 살기: 유리 로트만과 러시아 문화』 (김수환 지음, 문학과 지성사, 2014년 10월 27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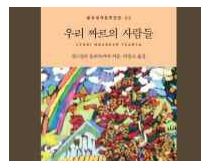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 김수환 교수의 두번째 로트만 연구서이다. 유리 로트만은 미하일 바흐친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현대 러시아 지성계의 대표적 학자이자 문화기호학의 창시자이다. 이번 책은 로트만의 시선과 언어를 그대로 되살리면서도 그의 문제의식을 우리 시대를 사유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물음으로 재구성해낸, 저자의 개성이 두드러진 역작이라고 하겠다.

저자는 ‘책에 따라 살기’라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태도로부터 도시와 영화에 대한 해석, 그리고 ‘대화’와 ‘주체’ 개념까지, 로트만의 사유를 통해 본 러시아적 문화 유형의 매혹과 위험을 흥미롭게 서술해나간다. 이 책은 학문적 깊이를 가진 연구서이지만, 로트만의 개념과 질문 들을 현재의 문제들을 사고하기 위한 흥미로운 좌표로 전유해내려는 저자의 노력과 유려한 문체가 결합되어, 일반 독자들에게도 로트만과 동시대적인 대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우리 모두의 정귀보』 (이장욱의 지음, 은행나무, 2014년 7월 4일 출간)

《우리 모두의 정귀보》는 2014 제8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작품집 수상작 이장욱의 작품이다. 또 최종후보에 오른 7명의 작가들의 작품들도 수록되어 있어 주목할만 하다. 수상작 이장욱의 《우리 모두의 정귀보》는 세상을 향해 던지는 경쾌하고 날카로운 야유에 통쾌해하다가 가슴이 시큰해지는 여운의 미학을 갖는 단편소설의 정수를 맞볼 수 있는 작품이다.



3. 『우리 짜르의 사람들』 (류드밀라 울리츠키야 지음, 박종소 옮김, 을유문화사, 2014년 7월 10일 출간)

소비에트 러시아 시대의 삶의 모습을 내밀하고도 상세하게 그린 작품을 만난다!

제2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 작가 류드밀라 울리츠키야의 단편집 『우리 짜르의 사람들』. 저자의 단편 소설 모음집으로 소비에트 러시아와 현대 러시아에서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영위했으며, 또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거대한 역사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작은 인간들의 사랑과 갈등, 용서와 화해를 주로 다루는 저자의 주제 의식이 담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시골 벽지에 사는 프랑스 여인부터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 두 다리가 없는 술주정뱅이 상이군인, 성가대의 노래하는 여인, 장님 노인,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젊은 청년, 의사, 수학자, 간호사 자매, 성공을 거둔 여성 작가와 그의 딸들까지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고 일구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삶의 진정한 모습과 의미를 보여준다. 운명에 농락당하고, 절망적인 슬픔을 견뎌내고, 삶의 무게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4. 『초능력자』 (그리고리 고린 지음, 백승무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년 7월 17일 출간)

[지식을만드는지식 희곡선집]은 인류의 유산으로 남을 만한 작품만을 선정합니다. 오랜 시간 그 작품을 연구한 전문가가 정확한 번역, 전문적인 해설, 풍부한 작가 소개, 친절한 주석을 제공하는 고급 희곡 선집입니다. 20세기 러시아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 그리고리 고린의 코미디를 초역으로 소개한다.



5.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톨스토이 지음, 윤새라 옮김, 열린책들, 2014년 7월 20일 출간)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부활』 등 세계적인 명작으로 칭송받는 장편소설도 그의 문학 세계를 잘 보여 주지만, 열린책들은 톨스

또이의 60년에 이르는 기나긴 작품 세계의 궤적을 한눈에 보기에는 선집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여 그가 평생 쓴 50여 편의 중·단편소설 중 대표적인 13편을 선정해 한 권에 담았다. 60년에 이르는 작품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책들의 톨스토이 소설선집은 차별점이 있다. 거장의 작품 세계를 시대별로 따라가며 13편의 소설을 읽다 보면 톨스토이의 삶과 문학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삶은 시작도 끝도 없다』 (알렉산드르 블로끄 외 지음, 이명현 옮김, 창비, 2014년 7월 30일 출간)

러시아 현대대표시인 『삶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189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표된 러시아 시 중에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러시아 모더니즘의 선두주자인 상징주의자들은 당대의 유물철학과 과학적 실증주의,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시’를 추구하였다. 이런 상징주의 계열의 시인으로는 기뻐우스, 발몬뜨, 브류소프, 블로끄 등이 있다.



7. 『2014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김현택, 김선래, 최우의 지음, HUNE, 2014년 7월 31일 출간)

『2014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 현재 각 단계의 사태 진행과정과 구체적 상황, 그리고 전망을 논의하는 12편의 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조망할 수 있다.



8. 『러시아문학번역집 15』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 소장자료, 엄순천 옮김, 선인, 2014년 8월 30일 출간)

이 책은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에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4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러시아문학보관소 소장 근대 한국사회 관련 자료번역·요약주해 및 DB구축]사업의 성과 중 2차년도에의 결과물을 간행한 것이다.



9. 『러시아문학번역집 18』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 소장자료, 김선안 옮김, 선인, 2014년 8월 30일 출간)

이 책은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에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4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러시아문학보관소 소장 근대 한국사회 관련 자료번역·요약주해 및 DB구축]사업의 성과 중 2차년도에의 결과물을 간행한 것이다.



10. 『러시아문학번역집 19』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 소장자료, 강성희 옮김, 선인, 2014년 8월 30일 출간)

[러시아문학번역집] 제19권은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에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4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러시아문학보관소 소장 근대 한국사회 관련 자료번역·요약주해 및 DB구축》사업의 성과 중 2차년도에의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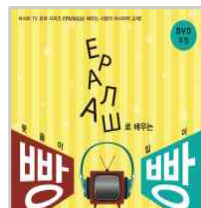
11. 『그림자』 (예브게니 시바르츠 지음, 백승무 옮김, 지식의만드는지식, 2014년 9월 15일 출간)

예브게니 시바르츠의 <그림자>는 동화극인데도 깊이 있는 철학과 강도 높은 사회 풍자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학자는 자신이 목고 있는 호텔방 건너편에 사는 여인이 ‘남쪽 나라’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진실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학자는 곧 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이에 ‘남쪽 나라’ 식인종과 고위 관료들은 학자가 왕위 계승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곤경에 빠뜨릴 계략을 세운다. 한편 학자에게서 분리된 그림자가 실제로 부상하면서 학자는 위기에 빠진다.



12. 『만물상』 (블라디미르 루킨 지음, 조주관 옮김, 지식의만드는지식, 2014년 10월 30일 출간)

루킨의 희극 <만물상>은 작품과 인생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처리해 세계가 하나의 무대이며 인생은 꿈이라는 가설에 토대를 두고 있는 메타 드라마 전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13. 『예랄라쉬로 배우는 빵빵 러시아어』 (나탈리아 코라셴스카야, 남혜현 지음, 라이사 꿀꼬바 감수, 뿌쉬킨하우스, 2014년 10월 31일 출간)

『예랄라쉬로 배우는 빵빵 러시아어』는 예랄라쉬 시리즈 중 러시아의 일상적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면서도 유머러스하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나오는 영상을

선별해 교재에 담았다. 기존의 시청각 교재가 영상과 연습문제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교재는 영상을 통해 주제를 제시한 후 연습문제를 풀면서 어휘를 확장해 나가고 대화를 유도한다. 또한 중간중간에 어려운 발음 구분, 영상의 내용 파악을 훈련하는 듣기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14. 『러시아의 전통 혼례 문화와 민속』 (김상현 지음,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년 11월 30일 출간)

[러시아의 전통 혼례 문화와 민속]은 러시아의 전통 혼례 과정을 풍부한 시각 자료들과 함께 서사화하면서, 혼례리는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의미망과 그 안에 내재한 러시아만의 문화 코드들을 분석적으로 풀어낸 보기 드문 결과물이다. 전통 문화에 대한 민속적인 접근에서 출발해 현대 러시아인의 일상과 그들의 의식 구조에까지 파고 들어간 이 연구의 깊이와 폭은 러시아 문화를 통시적이며 총체적으로 조감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15. 『미성년』 (테니스 폰비진 지음, 조주관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년 12월 2일 출간)

인류의 유산으로 남을 만한 작품만을 선정해 오랜 기간 그 작품을 연구한 전문가의 번역, 전문적인 해설,

풍부한 작가소개를 제공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희곡선집」 『미성년』. 캐릭토닉 기법을 활용한 개성적인 인물 표현이 특징인 이 희곡집은 당대 러시아 귀족 사회를 풍자했다.



16. 『우리 시대의 레미제라블 읽기: 21세기 ‘장 발장’들이 무한과 바리케이드 너머를 꿈꾸다』 (최갑수, 이도흠, 김규중 외 지음, 한울아카데미, 2014년 12월 10일 출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19세기 초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그런데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도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읽히며, 다수의 영화와 뮤지컬 등으로 꾸준히 제작되어왔다. 『우리 시대의 레미제라블 읽기』는 소설과 영화, 그리고 뮤지컬에 이르는 다양한 ‘레미제라블’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변화해온 시대정신의 발현과 등장인물, 그리고 가치를 다채로운 관점에서 비평한다.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대학교 러시아어과 이기주 교수 연구실 내 (사무국)

TEL: 031) 467-0801 FAX: 031) 467-0909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